

90년대적 일상의 진정성, 그 허와 실

MBC 일일드라마 '보고 또 보고'

김연화

1. 들어가며

일일드라마의 스펙트럼은 넓다. 매평일마다 방영되는, 드라마적 성격을 지닌 프로그램을 통칭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청자들 사이에 '일일드라마'는 그런 광의의 개념보다는 흔히 저녁 아홉 시 전후에 하는 드라마를 가리키는 협의의 개념으로 통한다. 여기서 일일드라마가 방영되는 시간대는 중요하다. 저녁 아홉 시 전후는 식구들이 저녁식사를 마친 후 한데 모여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지극히 가족적인 시간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간대에 방영되는 드라마의 내용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어느 세대라도 다 공감할 것. 하루의 일과를 마친 휴식시간인 만큼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될 것. 당연히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해야 할 것. 그래서 내린 결론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일일드라마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MBC 일일드라마 '보고 또 보고'도 이 서사전략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하지만 그보다도 이 드라마의 장점은 90년대적 일상을 잘 그려냈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 드라마를 통해 90년대적 '일상'을 돌아보고 그것의 진정성을 타진해보는 것은 어엿하게 우리의 '일상'이 된 드라마의 방향설정을 위해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보고 또 보고'의 서사전략

일일드라마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보고 또 보고'의 줄거리는 사실 단순하다. 대립적인 분위기의 두 집안 일상이 중심축을 이루고 거기에 속한 청춘남녀가 만나 사랑을 한다는 게 줄거리의 큰 틀이다. 그렇다면 녹차를 거푸 우려내는 것처럼 많은 드라마들, 특히 일일드라마에서 수도 없이 써먹은 이 내용이 커다란 인기를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흔치 않은 겹사돈 문제를 내세운 탓도 크겠지만, 단순히 그것 때문만이라고는 할 수 없다.

'보고 또 보고'를 자세히 보고 또 보면 거기에는 90년대적 일상이 삶의 진정성으로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다. 등장 인물들은 좀더 산뜻하고 세련되고 매끄러운 삶을 향해 걸 어간다. 모든 것이 소비적 이미지로 치환되고 마는 90년대에 그 삶은 당연히 물신화에 투항하는 삶이다.

90년대는 구질구질한 삶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가용과 핸드폰과 오디오와 컴퓨터. 이는 90년대적 삶의 기본 '덕목'들이며, 이러한 덕목이 배제된 삶은 불행하게도 이 현란한 연대에 진정성을 획득할 수 없다.

개인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삶을 정당화시켜준다. 그러므로 90년대에는 무엇보다 '나가 있다.' '나의' '멋진' 삶(소비를 즐길 수 있는 데서 기인하는). '보고 또 보고'는 90년대의 이 화두를 서사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드라마를 성공으로 이끈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젊은 층을 공략하는 미니시리즈에서처럼 현란한 화면구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가 상당히 감각적이라고 느껴지는 이유 역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90년대적 일상을 담아낸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다.

'보고 또 보고'의 비법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드라마에는 서사를 풍성하게 해 주는 수많은 대립항이 숨어있다. 그 대립항들이 서로 길항하면서 만들어내는 잔재미야말로 이 드라마의 인기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기둥이라 할 수 있다.

이 드라마의 대표적인 대립항은 기정네와 은주네, 두 집안이다. 사회적으로 중상류층이라 할 수 있는 기정네와 평범한 서민층인 은주네는 비단 경제력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 가장의 권위가 살아있음의 정도, 가풍의 엄격함 정도, 직업의 지명도 정도 등 두 집안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여기에 승미네가 가세함으로써 중심적인 대립항은 이제 삼각구도로 발전하게 된다. 돈과 가문의 명예까지 두루 갖춘 기정네와 한낱 졸부일 뿐인 승미네, 그리고 돈은 없지만 자상한 가장과 듄직한 아들이 있는 은주네와 돈은 많지만 억압적인 가장과 딸만 있는 승미네. 이 세 집안이 그리는 삼각구도는 어느 한쪽의 자력이 강하다거나 약하다거나 하는 것 없이 팽팽한 모습을 시종 유지하면서 드라마의 인기를 유도하는 일종의 기반시설로 기능한다.

또한 각각의 대립항은 속에 또 다른 대립항을 내포하고 있는 중첩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성격이 싹싹한 시어머니와 무뚝뚝한 며느리, 언제나 모범생으로서 검사가 된 장남과 분방한 성격으로 춤꾼이 된 차남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 등의 대립항을 지닌 기정네와 공주병적인 장녀와 여우같은 차녀, 장녀에 대한 엄마의 편애,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버지와 억척스런 엄마 등의 대립항을 지닌 은주네가 대표적이다.

그런가 하면 의사와 간호사의 미묘한 관계라든가 교장의 보수적인 교육관과 평교사의 열린 교육관, 주로 자식을 매개로 하는 중년여성간의 심리 등의 대립항을 강의 지류처럼 그 위에 얹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드라마의 매력은 많은 대립항의 존재 그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다. 드라마답게 과장되어 있을 망정 어느 가정, 거기에는 어느 직장, 어느 인간관계 속에서 한번쯤은 부딪쳐 봤을 인물과 겪어봤음직한 일 따위가 담겨 있다. 즉, 그 모든 대립항들이 생동감 있게 형상화되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통해. 거기다 그것을 성공적으로 거들어주는 감칠맛나는 대사를 통해. 가령, 기정네의 일상과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만두 에피소드는 소소하지만 얼마나 재미있던가. 그래서 '보고 또 보고'에는 잔재미가 많다.

이러한 대립항들은 자잘하게 들끓다 은주가 기정과 뗏어지면서 반전의 폭발을 시작한다. 엄마의 사랑과 기대를 받은 언니 금주가 일개 춤꾼인 기풍이에게 빠져 엄마를 실망시킬 때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당하던 은주는 살며시 일등 신랑감인 검사와 사귀다. 그러니까 은주네에서 촉망받던 금주는 기정네에서 상대적인 괘시를 받던 기풍이와 연결이 되고 이쪽 집안에서 별 기대를 받지 못하던 은주는 저쪽 집안에서 촉망받는 기정과 연결이 되는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엄마의 기대는 이제 은주쪽으로 쏠린다. 그런데 검사 기정은 의사인 승미와 선을 본 사이. 은주는 부잣집 의사딸인 승미까지도 체치고 기정을 차지한다. 여기서 더욱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고, 그간 알게 모르게 돈 때문에 승미엄마에게 자격지심을 느끼던 은주엄마는 속으로 통쾌함을 감추지 못한다.

은주와 기정의 결합은 그러나 은주엄마에게만 통쾌함을 가져다주는 게 아니다. 이 사건은 드라마 속의 표현을 빌자면 미운오리새끼가 백조로 변신하는 것인데, 시청자들 또한 이를 통해 통렬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드라마 속의 대립항들은 은주를 통해 반전이라는 한차례 폭발을 거친 후 금주와 기풍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겹사돈이라는 대폭발로 접어들게 된다. 그리고 우주가 빅뱅을 거치고난 후 무질서에서 질서로 전환한 것처럼 대폭발 이후는 평온하다. 이제는 대립항들이 다시 자잘하게 들끓으면서 아웅다웅 살아갈 일만 남은 것이다.

자칫하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나 통속적인 결혼이야기가 되기 쉬운 이 드라마가 탄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의 리얼리티를 획득한 것은 무엇보다 이 대립항들을 생생히 살아숨쉬게 만든 데서 비롯된다. 그것을 가능케 한 요인은 작가의 재능과 깔끔한 연출,

그리고 어쩌면 저렇게 맞을까 싶은 배우들의 연기가 잘 조화를 이뤘기 때문일 것이

다.

3. 90년대적 일상의 진정성, 그 허와 실

그런데 왜일까, 그 많은 대립항들이 빚어내는 잔재미에 흠뻑 빠져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고 나면 웬지 모르게 허전해지는 건 사리분명한 은주가 반듯한 기정이와 다정한 시간을 보내고, 약간 푼수 끼 있는 금주가 덜렁대는 기풍이와 아옹다옹하고, 은주엄마가 은주아버지에게 악다구니를 퍼붓고, 승미엄마가 딸 때문에 속상해하는 걸 재미있게 보다가도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웃음 속에서 허탈감이 묻어나는 걸 느끼게 되니 말이다.

그 이유를 앞에서 말한 90년대적 삶의 진정성에서 찾는다면 너무 지나친 비약일까. 다시 말해, '보고 또 보고'의 대립항들이 부딪치며 결국 찾아가는 건 산뜻하고 세련되고 매끄러운 삶, 무엇보다 '나'를 잘 꾸밀 수 있는 삶이다. 실제로 이 드라마에는 맛있는 음식과 쇼핑과 레저를 즐기는 일상이 행복하게 채색되어 빈번히 비쳐진다. 한마디로 구질 구질함이 묻어있지 않은 삶, 물신화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소비가 미덕인 시대와 불화하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등장인물들은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속물성과 위악성을 보여준다. 은주 엄마만 드러내놓고 그런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선량하게만 그려진 은주 아버지와 따뜻한 성격의 기정이 할머니, 교양 있는 기정이 엄마와 졸부아내인 승미 엄마 모두 따지고 보면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모두 표면적으로는 진정한 사랑과 가족간·이웃간의 우애를 강조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런 삶을 정당화시켜주는 개인주의와 그것이 확대된 형태인 가족이기주의에 첩첩이 둘러싸인 인물들이다. 주위에 너그러운 듯하지만, 엄밀히 말해 그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안정되고 세련된 삶이 훼손당하지 않는 한해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의 표정은 즉각적으로 싸늘해지고 목소리는 차가워지는 것이다.

매사 똑부러지는 은주는 그런 면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형상화된 캐릭터라 할 수 있다.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실현시키기 위해 그녀는 염치와 도리로 포장된 알미울 정도의, 아니 비굴할 정도의 여우짓도 마다하지 않는다. 팜프파탈형과도 다르면서 대책 없는 청순가련도 아닌, 그렇다고 순정적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은주의 모습은 분명 90년대적 일상을 살아가는 여주인공의 새로운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금주의 캐릭터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학원 논문 발표에서 헤겔 미학까지 들먹거렸던 그녀가 90년대 우리 사회를 휩쓴 페미니즘 열풍에는 도통 관심이 없

었던 것일까. 또한 소위 소설가 지망생이라면서 90년대 우리 문학계가 수도 없이 뺏어낸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의 여성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한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것일까. 은주도 마찬가지였지만, 금주는 결혼에 대해 일말의 회의도 없다. 결혼은 이들이 추구하는 삶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다. 아쉽게도 금주에게선 작가 지망생의 자의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사실 금주 자체의 캐릭터는 윤해영의 빼어난 연기에 힘입어 매우 흥미롭게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하나의 캐릭터를 완성시키는 요소의 부조화로 인해 현실감을 잃어버린 인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렇듯 적당히 속물적이고 위악적인 등장인물들의 모습은 90년대적 일상의 한 단면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그러한 인물로 이루어진 대립항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생동감을 부여받을 수 있었고, 드라마는 어느 정도의 리얼리티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지점에서 파생된다. 적당히 속물적이고 위악적인 인물들이 등장해 90년대적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드라마는 과연 그것의 진정성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그러한 흔적은 쉽게 발견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90년대적 일상의 진정성으로 포장하고 있는 혐의만 엿보일 뿐이다. 혹시 관찰은 있으되 통찰은 없고, 감각은 있으되 철학은 결여돼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난 후 자신도 모르게 일말의 허탈감을 씹게 되는 것은 아닐는지.

4. 마치며

허구가 실재를 대체하는 오늘날에 텔레비전은 그 허구를 만들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생산자이다. 그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은 자신이 만들어낸 허구를 복제해 또 새로운 허구를 만들어내고 그 이미지를 널리 유포시킨다. 시청률지상주의에 사로잡힌 지금의 방송현실에서 복제 대상이 되는 허구는 당연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일 수밖에 없다. '보고 또 보고'의 성공은 벌써부터 그 아류작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그리고 그 아류작들은 대부분 자매간의 얽힌 애정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다.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보고 또 보고'조차 90년대적 일상의 진정성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보여주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의 무의식적인 수용을 일일드라마라는 형식의 무던함을 이용해 요구하고 있기에 말이다.

그러나 어찌겠는가. 요즘 같은 시대, 그저 보고 또 보면서 웃고 또 웃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좋고 또 좋다는 것을.